

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의 문항유형 및 문항 수 조정

1. 문항유형 및 문항 수 조정 배경

·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(이하 '중등임용') 제1차 시험은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(이하 '시험규칙') 제7조(시험의 방법)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.

- 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·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,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(실기·실험을 포함한다) 평가로 한다. 다만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2.>
-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(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,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.

· 시험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은 기입형, 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.

· 이에 의거하여, 2018년 말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됨(<표 1> 참조).

<표 1> 2019학년도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의 문항유형과 문항 수

시험 과목 및 유형			문항 수	배점(모든 교과 동일)		
교육학		1교시 (60분)	논술형	1문항	20점	
전공	전공 A	2교시 (90분)	기입형	8문항	16점	40점
			서술형	6문항	24점	
	전공 B	3교시 (90분)	서술형	5문항	20점	40점
			논술형	1문항	10점	
	소계			22문항	80점	
계(배점)			23문항	100점		

· 그러나, 전공 시험에서 기입형은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, 논술형은 교육학 과목의 논술능력 평가와 중복 경향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됨.

- 이에 따라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인 전국 시·도공동관리위원회와 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의 문항유형 및 문항 수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.
- 단, 문항유형 및 문항 수 조정은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준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학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함.

2. 2020학년도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의 문항유형 및 문항 수

현행 (2018년 말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임용시험까지 적용)					조정안 (2019년 말 시행 예정인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)							
시험 과목 및 유형			문항수	배점 (모든 교과 동일)		시험 과목 및 유형			문항수	배점 (모든 교과 동일)		
교육학	1교시 (60분)	논술형	1문항	20점		교육학	1교시 (60분)	논술형	1문항	20점		
전 공	전 공 A	2교시 (90분)	기입형	8문항	16점	40점	전 공 A	2교시 (90분)	기입형	4문항	8점	40점
			서술형	6문항	24점				서술형	8문항	32점	
	전 공 B	3교시 (90분)	서술형	5문항	20점	40점	전 공 B	3교시 (90분)	기입형	2문항	4점	40점
				2문항	10점				서술형	9문항	36점	
소계			22문항	80점		소계			23문항	80점		
계(배점)			23문항	100점		계(배점)			24문항	100점		

3. 중등임용 제1차 시험의 문항유형 및 문항 수 조정에 따른 변화

- 현행 교육학 과목의 논술형 1문항은 변화 없음.
- 현행 전공 A에서 시행되던 기입형 8문항은 6문항(전공 A에서 4문항, 전공 B에서 2문항)으로 축소됨. 단, 배점은 문항 당 2점임.
- 현행 전공 A, B에서 시행되던 서술형 13문항은 17문항(전공 A에서 8문항, 전공 B에서 9문항)으로 확대됨. 단, 배점은 문항 당 4점임.
- 현행 전공 B에서 시행되던 논술형(교과교육학) 1문항은 폐지됨.
- 현행 제1차 시험 총 23문항은 총 24문항으로 1문항 증가하고, 전체 배점은 100점으로 변화 없음.
- 현행 전공 A, B의 시험 시간인 각 90분은 변화 없음.
- 문항유형 및 문항 수 조정에 따른 수정된 답안지 양식은 2020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.